

# 돼지고기·넙치 원산지 표시 위반 많아

## 원산지 표기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9,139개 ... 꾸준한 단속 불구 줄지 않아

### 송훈석 국회의원 농림수산물식품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기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처벌받은 업소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원산지 표기법 제정 이후부터 12월말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거짓표시 및 미표시)는 4,399개였으며, 수산물은 973개였다.

또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적발업소가 농축수산물은 3,091개 업체, 수산물은 676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올해 7월말까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 상위 위반품목을 보면 ▲1위가 돼

지고기(2,573건)로 전체 적발된 농축수산물 가운데 27.9%를 차지했고 ▲2위는 쇠고기 (1,550건, 16.8%) ▲3위는 배추김치 (1,101건,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물의 상위 위반품목은 ▲1위가 넙치(158건)로, 적발된 수산물 원산지 표기위반 품목 가운데 5.9%를 차지했고 ▲2위는 명태 (117건, 4.4%) ▲3위는 조피볼락 (106건, 3.9%)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송훈석 의원은 "정부 당국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근절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원산지 표기위반이 줄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와 농어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광호 기자



### 간성 '인정정육점'

## 최고 등급 고성한우 판매



인정정육점 송태호 대표는 21년째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최고급 고기만 취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간성을 신안리 중앙시장 택시정류장 골목에 인정정육점이 개업했다.

인정정육점은 죽왕면 인정리에서 태어난 주인장의 고향 마을 지명을 그대로 적용해 사용한다.

송태호 대표(44세, 사진)는 군 제대후 1990년 8월부터 현재까지 21년째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등급을 받은 고성한우만을 고집해 손님에게 내 놓고 있다.

또 돼지고기는 고성에서만 생산되는 품질 좋은 고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달에 최고급 고성한우 3두만 직접 잡아, 고기가 잘 숙성될 수 있도록 보관한 뒤 판매한다. 또 고객들이 손 쉽게 부위별로 고를 수 있도록 결대로 가지

런히 정돈되어 있다.

송태호 대표는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해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 하겠다"며 "정성을 다해 고객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정육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위별 한우 100g당 가격은 등심 6천원, 안심 5천원, 살치살 5천5백원, 차돌박이 3천7백원, 불고기 2천원, 갈비 3천원이다.

돼지고기는 100g당 생삼겹 2천4백원, 생목살 2천2백원, 갈비(냉동) 1천2백5십원, 주물럭 1천1백원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미리 주문하면 배달도 가능하다. <전화:681-4291>

박승근 기자

## 쌀 고품질화 위한 벼농사 평가회

### 상리 등 4개 마을 대상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2011년도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평가회는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혁신을 위해 주요 시범사업장을 순회하며 비교·평가해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내년도 식량작물 기술보급 및 농업인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종합평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상리 등 4개 장소에서 농업인 및 시범단지 회원 200명, 군의원 및 유관기관장 7명, 농협 4명, 군 관계자 14명 등 총 2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리에서는 벼 장려품종 선발 시험, 벼 병해충 예찰포가 진행됐으며, 이어 대대리에서는 탐라이



지난 16일 간성읍 상리에서 2011년 벼농사 종합평가회가 열렸다.

스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대한 평가가 열렸다. 또 아촌리에서는 기능성 특수미 종자생산단지, 신평리에서는 무늬점과 재배단지를 순회 관찰했다.

이를 통해 벼 시범단지 및 고품질 쌀 재배 비교평가, 벼 품종별 특성 비교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토의, 당면 영농기술 교육(벼 적기수확, 적온건조) 등

을 평가했다. 아울러 기상분석, 생육상황, 시비량 및 제초제사용, 병충해 방제 등 공통평가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를 통해 식량작물분야의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내년 기술지도 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

## 신용광고 김기덕 대표 거진읍에 쌀 100포대 전달

고성고등학교 인근에서 광고업을 하고 있는 (주)신용광고공사 김기덕 대표가 추석을 맞아 지난 7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달라며 쌀 10kg 들이 100포대를 거진읍사무소에 기탁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거진읍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조세핀씨(필리핀)가 친정아버지가 위독해 급하게 고향에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항공료 2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을 맞아 거진지역의 어려운 이

웃에게 쌀과 기름 등을 후원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